우리는 모두 페미니스트가 되어야 합니다

32152868 러시아어과 유하늘

 요즘 소위 ‘페미니즘’ 열풍이 불고 있다. 페미니즘이 무엇이든 간에 의식 있는 사람이라면 페미니즘을 해야 한다는 묘한 강요에 부딪히게 된다. 이 책도 그러한 여파로 출판된 수많은 책들 중 하나일 것이다. 다소 냉소적인 태도로 책을 읽게 되었으나, 책을 읽을수록 내가 여자로서 인식하지도 못했던 젠더 불평등이 해외에서도 만연하게 일어나고 있었음을 깨달았다. 작가는 여자라는 이유로 반장이 될 수 없었고, 성 노동자로 오해를 받았다. 그것은 명백한 부당함이다.

 다만 반문할 것은 우리가 살고 있는 이 땅, 한국에서 이루어지고 있는 페미니즘이 올바른 방향성을 가졌는가 이다. 내가 생각했을 때 페미니즘은 여성 우월주의가 아니라 남녀평등을 향한 운동이다. 이 책을 읽으면서 한 가지 공감했던 부분은, 추락한 여성 인권을 신장하고 비로소 남녀가 동등한 입장에 서야 한다는 것이다. 그런 측면에서 이 책은 추락한 여성 인권에 대한 사례를 다양하게 소개했으나, 남녀평등에 대한 역설보다는 여성 불평등에 초점을 맞춘 것 같아 다소 아쉬운 느낌을 받았다.

 페미니즘이라는 것이 갑자기 하늘에서 떨어졌다고 생각하지 않는다. 페미니즘이라는 단어 자체가 생경할 뿐, 성 평등에 대한 요구는 오래 전부터 존재해왔다. 현재 한국의 페미니즘 문화는 다소 과격한 모습으로 사람들의 눈살을 찌푸리게 할 때가 많다. 불평등에 맞서는 의식 개선 운동이 그저 양측간의 다툼으로 변질된다면, 오히려 평등으로 가는 길을 방해하게 되는 것은 아닌지 돌아봐야 할 것이다.